

日 백색국가 제외, 현대重-대우조선 합병 제동 우려

현대重그룹 기업결합신고서 준비 한일 관계 악화로 日 심사 큰 변수 임단협 파업 가결까지 '첩첩산중'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 국가) 한국 배제 조치로 국내 일각에서는 한일 관계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해양과의 결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현대중공업은 노조의 파업 결정으로 노사 갈등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그룹의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중국에 이어 유럽연합(EU), 일본 등 각국 경쟁 당국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신고서 제출을 준비 중이다. 이 중 한 나라만 반대해도 기업 결합은 무산된다.

당초 업계는 해운업이 강한 EU가 발주처 권의 침해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한일 관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악화로 현재 일본 당국의 심사가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대우조선해양이 지원받은 공적 자금 약 12조원으로 저가 수주를 하며 시장 가격을 교란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기업결합심사와 일본 수출규제는 별개의 문제”라며 “일본 측에서 기업결합심사를 반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고 전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지난 3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에 대한 일본의 제동 가능성을 두고 “지금 일

본이 무슨 짓이라도 할 기세인 하지만, 일본 수출규제와 기업결합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은 일본 경쟁 당국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을 포함한 국내 조선업계는 부품 국산화율이 90%가 넘는다는 이유에서 일본 수출 규제 영향이 적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더라도 조선업계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그러나 일본 경쟁당국이 수출 규제 분위기에 편승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심사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수출규제와 기업결합심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해도 일본정부가 한국과 전면적인 경제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마음을 놓기 어렵다는 입장도 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심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본조선공

업회(IHI)가 두 기업의 합병을 반대하고 있어 상황이 순탄하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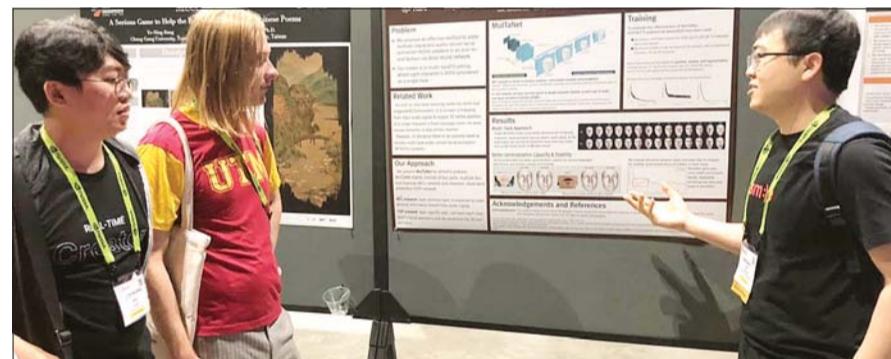
한편 현대중공업은 노사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올해 5월2일 임단협 상견례를 가졌으나 물적분할 갈등과 전무급 사측 교섭대표의 자격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2개월 넘게 교섭을 갖지 못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15~17일 전체 조합원 1만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재직 대비 59.5%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한 상태다.

노조는 행정지도 결정을 받은 뒤 파업을 했더라도 파업권이 인정된 대법원 판례를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사간 쟁의조정 회의는 오는 8일 개최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최장 16일간의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넷마블, 시그라프 2019서 AI기반 차세대 그래픽기술 발표

퓨터 그래픽 분야 세계 최고 권위 행사인 “시그라프 2019”에서 음성에 맞춰 얼굴 애니메이션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는 “다중작업 방식 음성 기반 일굴 애니메이션(MTADFA)” 기술이 담긴 논문을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넷마블 관계자가 시그라프 2019에서 AI 그래픽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가성비 없었다… 르노 ‘마스터 버스’ 선풍

주문 예약만 450건 넘어 뛰어난 가성비에 큰 호응

르노 마스터 버스가 출시와 동시에 국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르노 마스터는 지난 6월 3일 출시 날 사전 예약까지 합쳐 당일 오전까지 450 건 넘게 주문 예약이 이뤄졌다. 앞서 나왔던 마스터 밴보다 높은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마스터 버스가 환영받는 가장 큰 이유는 뛰어난 가성비다. 국내에 출시된 마스터 버스는 13인승과 15인승으로 구성됐다. 마스터 버스의 가격은 15인승 4600만원, 13인승 3630만원으로 미니밴이나 승합차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에 비해 현대 쏠라티는 가장 낮은 트림인 15인승 스탠다드의 가격이 6103만원이다. 15인승과 16인승 디럭스는 각각 6342만원, 6344만원이다.

가장 높은 트림인 15인승 럭셔리의 가격은 6489만원으로 여기에 8인치 내비게이션과 후방카메라, 차선이탈경보 장치와 전방충돌방지보조장치까지 옵션으로 달면 가격은 거의 7000만원에 달한다. 단순 비교만 해도 마스터 버스



어 사고 시 충격을 흡수 하는 공간(Crumple Zone) 역할을 함으로써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탑승 공간과 별도로 다양한 화물실을 실을 수 있는 넓은 트렁크도 장점 중 하나다.

엔진은 르노-닛산 얼라이언스의 최신 기술이 적용된 2.3 l 트윈 터보 디젤 엔진이 들어갔다. 또한 엔진 성능에 맞춰 함께 설계한 6단 수동변속기와 다양한 연비 시스템은 운영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해 유지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마스터 버스 13인승의 복합연비는 9.7km/l이다.

/양성운 기자 ysw@

세계 최초 올인원 에어솔루션 LG ‘시그니처 에어컨’ 선보여

냉방·제습·난방 등 한데 모아

4계절 공기질을 빙틈없이 관리해주는 진짜 에어컨디셔너가 나온다.

LG전자는 5일 LG시그니처 에어컨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23평형 스탠드 에어컨과 7평형 벽걸이 에어컨으로 구성된 2in1(투인원) 형태다.

시그니처 에어컨은 세계 최초로 올인원 에어솔루션을 제공하는 제품이다. 냉방과 제습은 물론이고, 난방과 가습, 공기청정 기능까지 한데 모았다.

그러면서 디자인은 작고 고급스럽게 만들어냈다. 공기를 형상화한 원형과 절제된 직선, 전면부에는 프리미엄 리얼 메탈을 적용해 시간을 뛰어넘는 품위를 표현했다.

기능성도 높였다. 시그니처 서클로 에어컨 바람을 빙틈없이 보내줄 수 있고, 인공지능 센서로 맞춤 바람도 제공한다. 4X파워 냉난방을 사용하면 듀얼 에어컨보다도 47%까지 많은 바람을 28% 빠르게 내보낸다. 공기청정 면적도 117m²(35평형) 수준으로 업계 최고 수준이다.



LG전자는 4계절 공기를 관리해주는 시그니처 에어컨을 출시한다.

/LG전자

필터는 무려 10년간 사용할 수 있다. 새로 개발한 시그니처 블랙 필터 덕분이다. 고성능 집진필터로, 황사와 초미세먼지 등을 깨끗이 정화해준다.

물을 보충하려고 물통을 어렵게 빼낼 필요도 없다. 오토 스마트 버킷 기능으로 제품 하단에 밸을 대기만 하면 된다. 필터도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열린다.

/김재웅기자 juk@

기보, 日수출규제 피해 中企 돋는다

비상대책단 구성, 본격 가동

기술보증기금은 5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비상대책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비상대책단은 일본 수출 규제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설치됐다.

기보는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대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전무이사가 비상대책

단장으로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전국의 7개 지역본부에 현장대응반을 설치하고, 부산 본점에 ▲상황점검반 ▲대응조치반 ▲대외협력반 ▲업무지원반을 구성해 본부부서와 영업 현장의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본부별 현장대응반에서는 기보 전 영업점에 ‘일본수출규제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특히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품·소재 기업과 간담회도 연다.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부실 상황 등을 파악해 상황점검반에 보고한다. 상황 점검반은 관련 기업의 보증수요 파악 및 보증기업의 부실상황을 점검한다. 대외협력반은 현장 상황을 정부 부처와 협의하고, 대응조치반에서 특례보증 및 기업구조조정 지원제도, 컨설팅 등 분야별 종합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기보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기업에 대한 신속한 종합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한님기자 ericabae1683@